

## PREVIEW

김다움 개인전 <대나무숲 옆에서>  
Kim Daum solo exhibition <By the Bamboo Forest>

전시기간 | 2015. 8. 6 목 - 2015. 8. 26 수  
오프닝 리셉션 | 2015. 8. 6 화 18시  
아티스트 토크 | 2015. 8. 22 토 16시



© 전시소개

김다움 작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새로운 소통 방법과 사회적 신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을 통해 현대인들이 불완전한 삶의 현실적 조건에서 적응/순응하는 모습을 다룬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현실응전력'을 키우는 인터페이스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 <옆 대나무숲>은 소셜미디어의 종류 중 하나인 SNS의 대표적 플랫폼인 트위터에서 이용되는 공간이다.

<옆 대나무숲>은 2012년 9월 12일부터 현재까지 트위터에서 동종 업계에 있거나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불만이나 애환을 토로하며 공감을 나누는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본인의 트위터 계정으로 접속해 자신의 얘기를 담아 소통하는 것과 달리 <옆 대나무숲>은 공동 계정 형태로 운영되며,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해 하나의 트위터 계정에서 익명으로 소통하는 방식이다. <출판사 옆 대나무숲>에서 시작되어 <방송사 옆 대나무숲>, <이공계 옆 대나무숲>, <IT회사 옆 대나무숲> 등 다양한 업계의 목소리를 담은 계정이 우후죽순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열풍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반면, 부정적 문제점도 우려되어 현재에도 끊임없이 존재 유무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 위키백과)

## © 인터뷰

Q. 이번 전시는 '옆 대나무숲'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실의 상황을 토로하는 공간인 온라인, 사이버 상에서의 인간들의 모습 혹은 관계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 수백 명의 네임리스가 내는 방향성 없는, 잔향과도 같은 그들의 목소리는 '옆 대나무숲'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하나의 소리이자 침묵(이들의 이야기는 실질적인 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성격상 침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침묵이 더 큰 소리일 때도 있습니다.)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처한 사회적 상태는 자신들이 겪는 불합리와 부조리에 대해 변화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옆 대나무숲'은 일종의 창구이자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과의 유대와 연대를 통해 사회적, 구조적 부조리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공간이었던 것이지요.

관심을 갖고 '옆 대나무숲'을 지켜본 후 저는 이들의 행위가 나름의 방법으로 새로운 소통 방법과 사회적 신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이자 실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불완전한 삶의 현실적 조건에서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고 저는 이들의 모습에서 '현실응전력'을 키우는 인터페이스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Q. 작품 소재로서 '옆 대나무숲' 이용자들이나 개명한 사람들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이 소재를 다루셨는지 궁금합니다.

A. 우연히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옆 대나무숲' 사용자들의 행동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현실의 불만에 대해 정면으로 저항을 하지 못하고 SNS라는 인터넷 공간에 익명으로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 주어진 사회의 부조리를 거부만 했지, 저항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들이 올린 글과 이야기에 관심이 가고, 그들의 이야기에 주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작업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둘 모두 이름과 관련돼서이기도 하고요. 이들에게서 저 자신을 본 것 같기도 합니다. 혹은 제가 못했던, 못하는 모습에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저는 서로 연결된 것들 '사이'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연결된 '사이'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어쿠스틱 디퓨저 - 대나무 숲 A>에서 구현한 작업을 특정소리, 잔향 등을 차단, 흡수, 분산, 확산 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들은 소리를 더 잘들리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저는 어쿠스틱 디퓨저라고 하는 장치가 하는 역할과 '옆 대나무숲'의 인터페이스가 닮았다고 생각했고, 이 작품은 '옆 대나무숲' 사용자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재료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쿠스틱 디퓨저-대나무 숲 A> 쓰인 책들은, '출판사 옆 대나무숲' 이용자(들)와 주변 사람들에게 모았습니다.

백경호 개인전 <Cast away>  
Baek Kyungho solo exhibition <Cast away>

전시기간 | 2015. 9. 1 화 - 2015. 9. 20 일  
오프닝 리셉션 | 2015. 9. 1 화 18시  
아티스트 토크 | 추후 공지



© 전시소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디지털 시대에서의 이미지 소비현상 결과인 공허함을 주제로 회화작업을 하는 백경호 작가의 개인전을 준비했다. 일상 관찰을 통한 그림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백경호 작가는 자신의 시선과 의식의 흐름에 집중하면서 독특한 화면을 구성해내고 있다.

나는 목록과 미술사를 합쳐서 나의 삶을 드러낸다.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를 이어 붙여 나가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작업의 완성을 암시하는 밑그림 없이 과정을 지속한다. 내가 작업과정에서 지니는 시선과 의식의 흐름은 동시다발적이고 분절적이다.

...

전시 제목 <Cast away>에서의 cast는 거푸집 혹은 주조를 뜻한다. Cast away는 다른 곳으로 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내가 선택한 소재들은 흘러가는 시간속에서 내 주변에 떠내려온 것들이다. 나는 그것들을 주웠고, 캔버스라는 오래된 거푸집에 담았다. 회화로서 삶을 이해해보려 하였던 나의 덜어문 시도들이 전시를 통해 여기와 다른 곳에, 그리고 더 멀리 늘어지기를 바란다.

## © 인터뷰

Q. 과거 회화, 설치 작업과는 작업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 작업과 비교하여 지금 작업을 진행할 때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먼저 지난 작업에 대해 말하면, 작업을 구상할 때 내용 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어떻게 귀결될지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예상하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작업을 진행하는 내내 작업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예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설치 당일 작업과정 중 가장 곤혹스러우면서도 쾌감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당시 저는 여러 소재들이 하나씩 그려져 있는 캔버스를 설치장소에 들고 갔었고, 그것들을 맞대보면서 가능한 경우의 수들을 하나씩 체크 했습니다. 그 과정 중 다층적인 환경에서 생겨난 리듬들을 맹목적으로 쫓았고, 그로 인해 하나의 화면에 포착한 결과물은 이전과 다른 인상을 주는 듯 합니다.

Q. 분할된 화면에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미지들이 모여 한 작품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이미지들은 어떻게 선택 혹은 만들어 졌으며, 그것들이 하나로 모여지면서 생기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A. 시시하고 특별한 것 없는 일상 속에서 '별 노력 없이도 흘러가 버리지 않고 내 손에 쥐어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들의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목록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수집한 뒤, 선별하여 각각의 이미지들을 캔버스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작업의 완성을 암시하는 밑그림 없이, 이렇게 그려진 캔버스를 서로 이어 붙여 나가면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날것과 가공된 것, 즉 이질적이고 다층적인 것들이 잘 섞여있으면 캔버스의 내부뿐 아니라 캔버스의 외부로 향해 작업을 읽는 사람의 시선과 의식을 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작가님에게 그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또 작업을 진행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방법, 혹은 규칙이 있나요?

A.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제가 선택한 가장 경건한 활동입니다. 인생도 한번 뿐이고, 붓질도 한 획 그어버린 후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지나간 순간은 되돌아오지 않으니 작업할 때 집중하는 수 밖에 없지요. 이번 작업에서는 작업이 완성된 모습을 결정짓지 않고 의식의 흐름을 따라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 | REVIEW with PHOTOS |

제2회 신진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short story long - 장마>  
Curator Incubating Program <short story long - rainy season>  
2015. 7. 7 화 - 7. 26 일



1 | 오픈닝 리셉션, 7월 7일 2 | 기획자 대담, 7월 22일

비를 맞으며, 혹은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내가 하는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걸까. 누가 억지로 상기시키려 하는가. 비롯된 감정은 내 눈을 먹구름으로, 액체가 흐르게 하는가. 어느 칠월, '기억의 요정' 이 빗줄기를 타고 창가에 내려 앉는다. 분명 그 요정은 슬프거나 우울한, 잊고 있던 기억을 꺼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제까지 잊고 있었는데,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생각조차 나지 않았었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 규칙적인 시계 초침소리는 내 심장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무언가를 그려놓은 그림은 내가 다른 무언가를 떠올리게 만든다.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겨울에 슬픔을 느낀다.' 라는 문구를 보고 '여름도 슬프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하며 깊은 곳에 있던 슬픈 감정을 억지로 한 번 꺼내본다. 모두 내 감정을 간질거리는 듯 하다. 비가 자주 오지 않았던 요 여름, 기억의 요정이 잠시 머문 곳. 요정은 일곱 빗갈 무지개를 남겨두고 떠났다. 일곱 작가들의 일곱 색의 일곱 기억을 남겨둔 채. (글. 한황수 코디네이터)

## 신광 개인전 <이사와 이주>

Shen Guang solo exhibition <Move & Emigration>  
2015. 5. 29 금 - 2015. 6. 18 목

어린 시절 나는 연탄을 이용한 난방시설의 집에서 살았다. 어머니는 연탄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연탄아궁이를 들여다보곤 하셨다. 내가 꼬마 티를 벗을 무렵 연탄을 교체하는 일은 나에게 종종 맡겨지기도 했다.

작품 <이사와 이주>에서 조선족인 신광 작가는 연변과 서울에서 본인이 살았던 집들의 난방 방식에 주목하였다. 난방방식은 지리적 기후 뿐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경제능력까지 반영되어 정해진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소재로 가옥의 난방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은 내 어린 시절의 기억과 맞물려 작가에게 일종의 동질감을 느끼게 하였다.

또 다른 작품 <보이지 않는 경계>는 작가가 이주자로서 경험한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전시와 잘 맞아 떨어지는 느낌을 주지만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단순히 A, B 두개로 나누어진 구역은 작업을 위한 긴 텍스트를 무색하게 하고, 어플리케이션의 반응은 관객의 발걸음을 따라가기엔 다소 느리기 때문에 작가가 임의로 정한 구역 사이의 경계는 선명히 체감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경계를 경험한다는 작품의 설정은 신선하고도 재미있다.

신광 작가는 이주자, 소수자로서 겪은 경험과 정체성을 소재로 한국 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불편할 수도 있는,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외면해온 문제들을 자신의 시각에서 자연스럽게 가볍게 풀어내어 관객이 거부감 없이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전시를 구성하는 능력은 작가만의 큰 장점이 아닐까. (글. 박윤삼 코디네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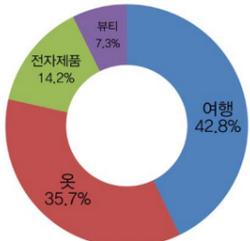
1 | 아티스트 토크, 6월 16일  
2 | 퍼포먼스, 5월 29일

## | EPILOGUE |

### 만약 / 그렇다면 / 년 / 어절래 / ? / !

23세~33세의 남·여 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Q. 공돈 100만원으로 자신에게 선물한다면?



어느 신데렐라님의 답변  
: 내 예쁜 다리에 스틸레토힐을 선물.

Q. 1년동안 한 음식만 먹으며 살아야 한다  
: 라면의 종류는 무한하다.  
: 얼마전 돈부리를 먹어봤는데, 맛있었다.

Q. 1억원의 공돈을 일주일만에 소진해야 한다면?

: 가족과 친구들에게 최고급 건강검진을 시켜주겠다.  
: 원룸 전세 계약금으로 써서 독립하고 싶다.

Q. 1억원의 공돈을 이성을 위해 사용한다면?  
영원한사랑님의 답변  
: 남자친구가 아주 조금 못생겨서 교정이랑 코수술을 해주고싶다

절없는 답변  
: 해외를 간다. 도박을 해서 더 부자가된다.



Q. 10억원으로 자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느 독립투사님의 답변  
: 비밀이다. 절대 말하지 않겠다.

Q. 5년동안 어떤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



인생무상님의 답변  
: 하와이. 거기들도 멋지게 산다.

## | SHORT-CUT NEWS |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김정은 작가가 7. 13 부터 3호선 불광역 7번 출구 근처 갤러리카페 모리스에서 개인전을 갖습니다. 2013년에 윌링앤딜링에서 선보였던 '깃발 프로젝트'와 '네일레이디' 외에 '안내방송' 이 새롭게 소개됩니다.



김정은 작가가 포항미술관에서 열리는 단체전 <LOVE>전에 참여하였습니다. 전시기간은 7.9 ~ 10.4 까지.

박진우 작가는 6월 1일부터 6월 10일 까지 호림아트센터에서 열린 <kitchen in fantasy>에 참여했습니다.



천창환 작가의 개인전 <어긋난 사람들>이 세움아트스페이스 갤러리카페 S에서 열렸습니다.

이정형 작가는 현대자동차가 주최하고 대안공간 루프가 주관하는 더브릴리언트 아트프로젝트 Dream Society 2015전에 참여합니다. 장소는 부암동 서울 미술관이며, 전시기간은 9.4 ~ 10.11 까지.



오인환 작가가 참여하는 <올해의 작가상 2015> 전시가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립니다. 전시기간은 8.4 ~ 11.1 까지.

장종완, 추미림 부부가 6월 19일 다녀왔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신기운, 추미림 작가는 6.10 ~ 6.22 동안 가나 인사아트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3회 보네이도 아트콜라보레이션 에코라운드>전에 참여했습니다.



이윤호 작가가 중구 수표동에 Bar '신도시' 를 오픈했습니다.

강석호 작가가 8월 8일 헤이리마을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3층에서 개인전을 가집니다.

손동현 작가는 지-드래곤 협업 프로젝트인 <peace minus one>에 참여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기간은 6.9 ~ 8.23 까지.

박경률 작가가 화창한 7월 19일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백년회로 하시길.

오시는길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7-20번지 2층



후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 행: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편집인: 박윤삼, 한황수  
감 수: 김인선  
발행일: 2015년 8월 5일

## | W&D NEWS |

평소 강인한 정신력으로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기로 소문난 강한남자 한황수 코디네이터가 당구장에서 눈물을 흘렸던 사연을 공개하였다. 사연인 즉슨 '와사비콩 섭취중 머리를 넘기다가 무심코 눈가에 손이 닿았다고..'

박윤삼 코디네이터는 처음으로 조카가 태어난 데 이어 올해 초 내놓은 작업실이 6개월 만에 계약 이전된 것에 대해 안도감을 표하였다. 특히 남자형제밖에 없는 박씨는 태어난 조카가 딸이라는 사실의 묘한 심정을 '삼촌미소' 로 드러내며 주변에 오글거림을 선사하고 있다.

월딜의 친구 서민철 박사는 역촌역 주변에 "테이크파이브 더치앤드립"이라는 커피 전문점을 오픈하였다. (은평구 역촌동 16-19) 서씨는 직접 내린 드립커피를 윌링앤딜링에 종종 제공하였으며 월딜엔터 및 영화의 밤 등 각종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2015 하계 MT at 제주

